

‘폭염 속 탈진’ 80대 치매노인 구조 경찰 ‘훈훈’

●목포 죽교파출소 배영주 경위·구재필 순경

범죄 예방 순찰 중 목포대교서 발견...교통사고 위험 등 우려
특정조치·탐문 통해 가족 인계...“주민 생명·안전 보호 최선”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 순찰 중 폭염 속 탈진 상태로 도로를 횡단하는 치매 노인을 발견, 신속하게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일 목포경찰서 죽교파출소에 따르면 파출소 4팀 배영주(49) 경위와 구재필(31) 순경은 최근 관내 순찰 중 왕복 4차선의 목포대교를 배회 중인 윤모(85·여)씨를 발견했다.

윤씨는 당시 주행 중인 차량 및 소음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심에 소리를 지르며 차량 속으로 뛰어드는 등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높은 상황이였다.

이에 두 경찰관은 윤씨를 안전하게 갖길로 유도, 구조했고 순찰차에 있던 물을 마시게 하며 탈진 관리에 힘썼다.

그러면서 이름과 사는 곳 등을 물었으나 윤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한 단어만 되풀이 하자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 특정조치를 해 동명의 13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주소지 탐문을 통해 30여분 만에 8번째 집에서 윤씨의 아들을 만났다.

아들에 의하면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어머니가 사라진 걸 알게 돼 곧바로 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한 시간 가까이 어머니의 흔적



배영주 경위



구재필 순경

을 발견할 수 없어 실종 신고를 하려던 찰나 경찰과 함께 온 어머니를 보게 됐다.

아들은 해당 경찰들에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씨의 집에서 목포대교 입구까지는 걸어서 20여분이 걸리며 윤씨가 발견된 목포대교 입구 반대편까지는 도보 40-50여분이 소요된다.

/목포=정해선기자

윤씨는 전에도 2번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며, 수차례 집을 나가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영주 경위와 구재필 순경은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법상 목포경찰서장은 “폭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적극적인 조치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목포경찰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운수 죽교파출소장은 “치매 노인은 폭염이나 후한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를 추가 보급하거나 통장협의체와 협업체 일대일 관리 등 촘촘한 안정망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광주 우수 소방인’ 4명 표창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1일 “8월 광주소방을 빛낸 우수 소방인”으로 재판방·김재환·홍우식·노석훈 소방관을 선정, 표창했다

재판방 소방관은 재난 대응 교육 역량 강화와 대국민 민·관 교육 운영으로 광주소방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지난 7월 파라과이 소방대 초청 연수 사업에서 맞춤형 교육을 기획해 연수 교육을 원활하게 끝마쳤다.

김재환 소방관은 찾아가는 119안전체험의 날, 물놀이장 소방 안전 교육 등 시민들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 집합이 소방 안전 교육을 추진, 대시민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홍우식 소방관은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필수 등 기본 차량 운전원 양성, 소방 장비 관리 요령 숙달 지도 등 소방 장비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노석훈 소방관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교수 요원으로 근무하며 체험 구역 표준 교안 개발,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지속할 수 있는 안전 체험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광주소방을 빛낸 우수 소방인을 지속 발굴해 조직 내 활력을 증진시키고 각자의 업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농협 구례군지부-농어촌공 구례지사 ‘쌀 소비 촉진’ 협약

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와 쌀 소비 촉진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확대를 위해 실시됐다.

농협 구례군지부와 농어촌공사 구례지사는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쌀 소비 촉진 대외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공사 직원들에게 아침밥 대용으로 백설기 떡을 나누면서 아침밥 먹기 운동에 지속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성재 농협 구례군지부장은 “아침밥 먹기는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쌀 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지속적인 MOU 체결을 통해 관내 각 기관들과 쌀 소비 촉진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화순인문학교육협회 ‘인문학 공개강좌’ 성료

화순인문학교육협회는 1일 “(사)한국사마천학회 인문고사영어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28일 화순군청청소년수련관에서 ‘언어의 소금, 알고 쓰자 고사영어’라는 주제로 인문학 공개강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화순지역 청소년 및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인문학 공개강좌는 오는 11월22일 열리는 제1회 화순군 청소년 ‘알자 쓰자 고사영어’ 경연대회를 사전에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강좌는 정연우 화순인문학교육협회 부회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대회장인 서순복 조선

대 교수의 인사말과 장승명 화순경찰서장 축사에 이어 역사학자인 한국사마천학회 김영수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열강했다.

김 이사장은 “고사영어에는 역사와 문화, 인간관계, 교훈, 통찰력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고사영어를 알고 쓰면 언어의 격이 높아지고 말이 달라지며, 좋은 글을 많이 읽으면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대화가 원활해진다”고 강조했다.

김광남 화순인문학교육협회장은 ‘알자 쓰자 고사영어 경연대회’를 자세히 소개한 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화순=이병철기자



영암경찰, 삼호읍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순찰

영암경찰서는 “최근 삼호읍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시자문협의회, 외국인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모범전자회 등 8명 등이 참여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순찰은 지난해 8월 지역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첫 실시돼 올해 1년을 맞이했으며 전남 최초 외국인 자율방범대 창설 등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펼쳐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영암군은 전남 내 2개 시·군 중 등록 외국인 1위 지역으로 지역 주민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전개해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안전한 영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기자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탄소저감 방안 세미나’ 성료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탄소저감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양만권의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 ▲청정합성 연료 기술 동향 및 미래산업 전망 ▲ESG 경영과 ESG 평가 요소에서의 E(Energy) ▲산업시설에서 배출된 악취 저감 기술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됐다.

센터는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산업 육

성을 위해 전남도환경산업협회,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과 200 탄소중립 정부 시책과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새로운 우수 기술 교류 및 환경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다.

김은식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가 환경산업 신기술 홍보 및 기업 간 교류를 통한 협업 체계 마련 등 전남도 내 환경산업분야 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파리올림픽 전남 선수 5명 ‘고향기부 캠페인’ 동참

파리올림픽에서 고향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빛낸 전남 출신 및 소속 선수들이 전남도의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에 동참,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은 개인이 하루 1천원씩 기부해 연간 총 36만5천원을 기부함으로써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달 28일 경기도에서 1일 명예 경기도지사 역할을 수행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동연 경기지사과 함께 고향사랑 상호 기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로 어려운 지방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박해린 바이오스마트그룹 회장과 호남항우 회장들, 가수 박지현 등 다양한 출향인사가 캠페인에 동참,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출신으로 파리올림픽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남수현, 복싱 여자 동메달리스트 임애지, 사격 속사권총 은메달리스트 조영재, 사격 트랩



이보나, 전남도청 소속 펜싱 사브르 여자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최세민 등도 고향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기타받은 고향사랑 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등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전남도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을 통해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양육하자’에 참여하며 아동 보호와 긍정적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을 위한 긍정적 양육 방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장충모 사장은 “전남개발공사는 지역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캠페



인이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이정선 광주교육감, 5·18재단 30주년 감사패 수상

광주시교육청은 1일 “지난달 30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개최된 ‘5·18기념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정선 시교육감이 ‘창립 30주년 유공 포상’ 교육부문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5·18기념재단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5·18 교육을 위한 5·18 교과서와 교육 수업자료 개발, 5·18 교육 내실화, 5·18 교육 전국화와 세계화 기여 등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대기자



부음

▲윤정금씨 별세·오장원(송강학원 이사장)씨 모친상·이선재(광주여자대학교 총장)씨 시모상 =발인 3일(화) 오전 7시30분 광주 VIP장례타운 VVIP 301호(광주시 서구 풍서로237).